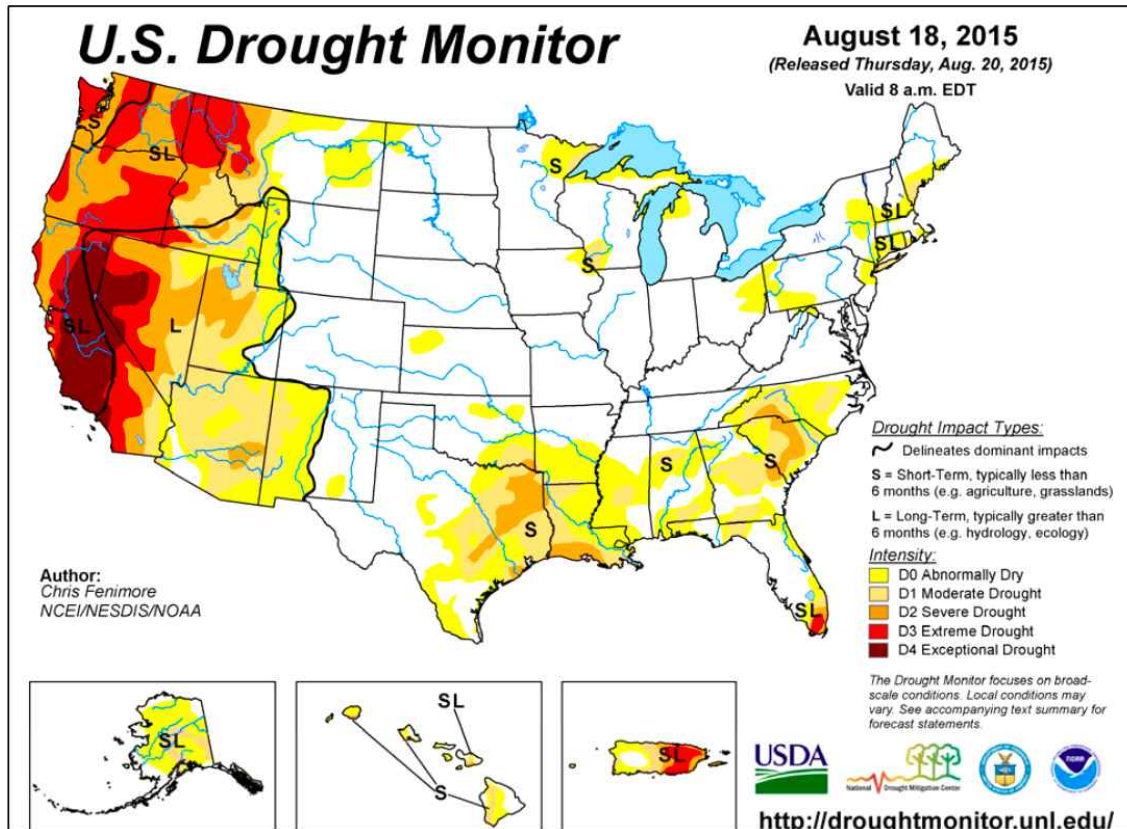


8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4)

□ 미국 기후 현황(8/16~8/22)



8월의 전반부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중서부 일대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옥수수 지대 일대에도 비가 내렸고, 기온도 내려가 대평원과 남부, 중서부 일대에는 평년보다 5~10°F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평원 일대의 비로 인해 농작업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지만, 작물들의 수분 부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아리조나와 로키산맥 중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가뭄이 조금 완화된 상태이다. 북서부 내륙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선선한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산불이 몇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번개와 돌풍, 선조한 날씨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간간히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8월 23일을 기준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7백 50만 에이커에 달하며, 이는 10년 평균 피해 면적의 143%에 달한다.

□ 농업 현황 요약(8/17~8/23)

미주리,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의 고티얼안지역, 텍사스 등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1.5인치 내외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로키산맥 서부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부지역의 경우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낮았고, 미주리 강 인근 지역에서는 평년 평균 기온보다 9°F 이상 낮은 날들이 이어졌다.

■ 옥수수

전국적으로 호숙기(dough stage)에 도달한 재배지 비율은 85%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4%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4%p 앞선 상황이다. 콜로라도와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위스콘신에서는 지난 한주간 호숙기에 이른 비율이 20%p 이상 증가했다. 8월 23일 기준으로 황숙기(denting stage)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은 39%이며,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6%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4%p 뒤쳐진 상황이다. 18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지난 한주간 황숙기에 접어든 재배지 면적이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는 같은 수치이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4%p 뒤쳐진 상황이다.

■ 면화

8월 23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면화 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83%로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7%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9%p 뒤쳐진 상황이다. 15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면화 송이가 형성된 비율이 94%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면화송이가 떨어진 비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4%p,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4%p 늦은 편이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3%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수치이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p 높은 수준이다.

■ 쌀

8월 23일 기준 전국 출수율은 94% 수준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고 있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4%p 앞선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주말까지 18%의 수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2%p 앞선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66%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2%p 감소한 수치이며 작년 동기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8/16~8/22)

■ 유럽: 영국에서는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지난주 내렸던 비에 이어 이번 한주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져 밀과 유채의 수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옥수수과 해바라기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은 탓에 작물들이 가뭄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베리아 반도 전역에서 맑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전역에는 20~7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탈리아에서도 10~50mm의 비가 내려 포 강(Po River) 일대의 가뭄을 해소시켜 주었다. 동부 일대에도 25~75mm의 비가 내려 대지를 충분히 적셔 주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비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북동부 일대의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3°C 이상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이와 반대로, 중부와 남동부 유럽에서는 평년보다 1~2°C 낮은 날이 많았다. 프랑스 남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2~3°C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

■ 구소련(서부): 한주간 강한 햇빛에도 불구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덕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지역 작물들의 가뭄 스트레스가 다소 완화되었다. 주 초반에는 낮 최고기온이 20~30°C 사이에 머물렀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20°C 초반까지 낮 최고기온이 내려갔다. 일부 지역에서는 따뜻한 대기가 머물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1~2°C 정도 낮은 기온을 유지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는 10~25mm의 비가 내렸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러시아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수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 일대에는 25~50mm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지난 여름 동안 이어진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옥수수 생육상태는 지난 6월 이후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같은 상황이 이번 비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 북부 평원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Hebei와 Shangdong 동부 일대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그밖의 북부 평원 일대에는 10~25mm의 비가 내렸고, 남쪽 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Yangtze 계곡 일대와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많은 비가 내려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회복하였다. 그밖의 남부 전역은 태풍 고니가 지나가면서 50~100mm의 비가 내렸다. 북한에서도 지역에 따라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남한에서도 남부지역의 경우 50~100mm의 비가 내렸다. 일본에서는 주기적으로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려 쌀 재배지역 일대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 호주: 서호주 일대에는 주 초반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고, 주 후반에는 15~30mm의 비가 내렸다. 서호주 일대에서는 대부분의 작물이 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비는 수확 직전의 적절한 시기에 내렸다. 남호주 일대에서도 5~25mm의 비가 내렸다. 반면, 빅토리아 북부에서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쪽에서는 2~10mm의 매우 적은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지난 수 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남부와 동부의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부에서는 평년보다 2~3°C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 아르헨티나: 남서부 곡창지대에는 3~25mm의 비가 내렸고, 토양 수분 부족 현상을 해소해 주었다. La Pampa와 Buenos Aires 남서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르헨티나 중부 지역 대부분에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오르고 있다. La Pampa, Buenos Aires 일대에서는 밤동안 영하에 가까운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고 있다. Cordoba, Salta 등 북부지역에서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우르과이 북부와 Chaco 남부 등에서는 25~100mm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 지역의 Parana 강 일대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기온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동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중반까지, 서부에서는 30°C 초반까지 올라갔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8월 20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7%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밀의 수확률은 99%에 이른다.

■ 브라질: 주요 곡창지대인 중부와 남부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Rio Grande do Sul 남서부 지역에서는 25~100mm의 비가 내렸고, Parana 남부와 북부에서는 10mm의 비가 내렸다. 그밖의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 수준 또는 평년보다 1~2°C 내외로 오르내렸다. Sao Paulo, Minas Gerais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까지 올랐고 사탕수수와 커피 수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보다 남쪽의 Parana, Rio Grande do Sul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중반에서 30°C 초반까지 올랐고, 밀과 옥수수는 수확을 앞두고 잘 여물고 있는 상황이다. Mato Grosso, Tocantins, 그리고 그밖의 북동부 내륙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올랐다. 이와 달리 남동부 해안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